

# 모르쇠·잇단 말 바꾸기...공군, 숨기는 것 있나

## 광주 헬기 추락 사고 원인 의혹 증폭

“저공비행 유도”→“7000피트로 높이라 지시 했다”

“이륙 4분만에 레이더서 사라져”...관제 부실 의혹

교신일지도 비공개...급상승 등 사고원인 규명 막혀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도핀·Dauphin·AS365-N3) 추락 사고와 관련 <광주일보 7월 18일 1·3·6·7면 참조>, 공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에도, 당시 관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커녕, 잦은 말 바꾸기로 의혹을 부추기는가 하면, 교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비공개기로 하면서다.

◇공군의 오락가락 해명, 의혹만 키워 =공군 제 1전투비행단은 20일 “평소 저고도 비행을 하는 공군 훈련기와와 충돌을 막기 위해 소방본부 헬기를 700피트(213m) 아래로 유지할 것을 주문해왔다”고 밝혔다.

공군이 지난 17일 소방본부 헬기 조종사들이 “저고도 비행을 하는 공군 훈련기와와 충돌을 막기 위해 항상 헬기를 700피트 아래로 유지할 것을 주문한다”는 주장에 “모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관제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군은 또 “사고 헬기는 지난 17일 이륙 직전 7000피트(2134m)에서 운항하겠다고 관제탑에 신청한 뒤 이륙 승인을 받았다”며 “헬기가 이륙한 뒤 (공군)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고도를 7000피트로 높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애초 보안상 이유를 들어 관련 내용 공개를 거부했

던 방침을 사용만에 바꿨다. 사고 헬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문제를 두고도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군은 “사고헬기가 이륙한 지 4분 만인 지난 17일 오전 10시53분 3600피트까지 상승했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몇 피트 상공에서 사라진 것인지 여부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레이더를 중심으로 전방위 450m 밖에 있는 헬기·항공기의 경우 운항 상황이 레이더에 표시된다는 점에서 사고 당일 공군의 관제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군의 교신 일지 비공개 방침이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지 못한

다는 지적이 거세다. ◇기체 결함 의혹 커져=공군 제 1전투비행단 및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9분 이륙했다가 4분 뒤인 53분 3600피트까지 상승한 뒤 사라졌다.

산술적으로는 분당 900피트까지 급상승한 것으로, 헬기의 통상 안전 상승 속도인 분당 500피트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당시 조종사들이 모두 베테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헬기가 통상 상승 속도를 무시한 채 급상승한 배경을 밝히는 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행기자 golee@/박기우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참사 96일 실종자 10명

세월호 3~4층 짐승수색

18일 희생자 1명 수습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 첫날인 2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24일만에 세월호 실종자 1명이 추가 수습된 후 실종자 수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96일째인 이날 현재 실종자는 10명이다. 민간군 합동 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 31분부터 오전 8시 51분까지 15차례에 걸쳐 30명이 선체 3~4층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 추가 소송

주민대책위, 1만478명...1차 소송 대법원에 계류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군 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20일 광주 전주시소음피해 주민대책위(이하 소음피해 대책위)에 따르면, 광산구 송정·도산·우산·신흥동 등 군공항 인근 주민 1만478명은 21일 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 5만여명은 3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5년 1

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고법에서 207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의 상고로 지금까지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강현 소음피해 대책위 위원장은 “이번 4차 소송은 새롭게 소음피해 소송단에 가입한 주민 등이 제기한 소송”이라며 “주민들이 손해배상과 함께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용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소송과 별개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낮에 음주단속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광주 경찰은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대낮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진행된 단속에서 2명이 적발돼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 위령탑 세운다

조종사들 살신성인 정신 기려...민 청장 “의견 수렴중”

지난 17일 발생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도핀·Dauphin·AS365-N3) 추락사고와 관련, 순직한 조종사 등 5명의 뜻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이 설치될 전망이다.

민행방광주시 광산구청장은 20일 광주 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운항한 광주 시장과 최본순 강원도지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추모공간 건립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위령탑 건립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령탑 건립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설치 장소는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성덕중 인근 헬기 추락사고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순직한 정성철(52) 조종사 등 5명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광산구민과 강원도 소방본부, 유가족 등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헬기 추락하는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도로 주변(토담)으로 기체를 유도해 대형 참사를 막은 점을 인정해 순직 소방관들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폭언 교장 바뀌달라”...교직원들이 집단 탄원

광주시교육청 감사후 직위해제...해당 교장 “법적 대처” 반박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직원들은 교장의 심한 언어 폭력 및 비정상적 학교 운영을 문제삼아 ‘교장 교체’를 주장하는 반면, 해당 교장은 교직원들의 무사안일 주의 타파를 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S초교 교직원 20여 명은 최근 이 학교 A교장의 부당한 학교 운영과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의견서 40여장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해당 교장이 교직원 회의 등에서 ‘양아치’ 등 반복적인 언어 폭력 등으로 당사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학교 교직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도를 넘는 언어 폭력과 독단적인 회의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해당 교장 밑에서는 더 이상 근무할 자신이 없다”며 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해당 교장을 상대로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지난 18일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며 직위해제 했다.

반면, A교장은 “교장 부임 뒤 파악한 학교 재정·관리 상태를 파악한 뒤 무사안일 주의를 깨고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를 운영해왔다”면서 “교직원들 말만 믿고 직위해제시킨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박했다. A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짜맞추기식 감사’를 통해 직위해제 했다”며 “교육계의 무사안일주의 타파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이혼 요구 아내 폭행 경찰서행

○--이혼 요구에 화가난 50대 남편이 아내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경찰서행.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지난 19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A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50)와 딸다툼 중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것.

○--몸이 성치 않은 노부모를 보살피는 아내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김씨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이날 오랜 만에 집을 찾았으나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들먹이며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 화가났다”고 진술. /박기우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p><b>근린시설 ▶ 수익성 물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 1094㎡ 건 4489㎡) 감정가 41억6, 최저28억 화정동 금호빌딩 옆</li> <li>·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 330㎡ 건 1283㎡) 감정가 11억7, 최저5억2 동구 수기동 시내중심지</li> <li>·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 780㎡ 건 1992㎡) 감정가 24억7, 최저24억, 8차선 도로점 분사사옥</li> <li>·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대 1735㎡ 건 23.3㎡) 감정가 30억, 최저21억, 대형마트 도시형 주택</li> <li>· 북구 산안동 근린시설(대 951㎡ 건 2652㎡) 감정가 26억, 최저11억 주택형합 분사사옥</li> <li>· 무안군 해제 근린시설(대 578㎡ 건 308㎡) 감정가 11억3, 최저3억2, 투자적합</li> <li>· 순천시 장천동 근린시설(대 423㎡ 건 738㎡) 감정가 12억, 최저6억, 순천대미널 옆</li> <li>· 화순군 능주 근린시설(대 879㎡ 건 1447㎡) 감정가 10억, 최저4억6, 투자적합</li> <li>· 영광군 법성 근린시설(대 3658㎡ 건 4309㎡) 감정가 34억, 최저9억1, 대형사우나</li> <li>· 광양시 봉암 근린시설(대 3197㎡ 건 792㎡) 감정가 40억, 최저18억, 전원지 글포장</li> <li>· 목포시 용당동 근린시설(대 221㎡ 건 966㎡) 감정가 6억6, 최저2억3, 상가형합지</li> <li>· 장성 성계 근린시설(대 1068㎡ 건 631㎡) 감정가 2억5, 최저1억7, 전원 상가지</li> </ul>	<p><b>오피스텔 및 특수물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대 428㎡, 건 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li> <li>·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 205㎡, 건 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li> <li>·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 32.8㎡, 건 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li> <li>·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대 5.81㎡, 건 21.7㎡) 감정 3천9백 최저 2천2백9십</li> </ul>
<p><b>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대 138㎡, 건 202㎡) 감정 2억4 최저 2억2</li> <li>· 북구 중흥동 근린주택(대 156㎡, 건 97㎡) 감정 1억2 최저 8억2 코너 주택 상가</li> <li>· 북구 유동 근린주택(대 229㎡, 건 608㎡) 감정 3억8 최저 2억6</li> <li>· 서구 농성동 근린주택(대 398㎡, 건 328㎡) 감정 7억2 최저 5억</li> <li>· 동구 산수동 근린주택(대 179㎡, 건 118㎡) 감정 1억3 최저 9천</li> <li>· 북구 오치동 근린주택(대 127㎡, 건 148㎡) 감정 1억 최저 7억4</li> </ul>	<p>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p> <p><b>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실 분</b></p> <p>상가, 대지, 근린시설 주택, APT, 전문취급함</p>

010-6832-9700 062)512-8080

**신축원룸(용봉지구) 신축원룸(전대2분)**

매가 1억8천 (보2억 용3억)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룸 12개 1층 점포 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 21개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 21개(1층 상가, 룸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 18개(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 원룸(3억~20억) 다양 있습니다.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상가매매(7층사우나) 상가매매(수익성상가)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북구 유산동 구호전 앞 무등 정세상 사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간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①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 (신한은행 투시, 모이엘가사 상가) 매가 3억5천 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②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62평 (롯데마트 옆, 서해남공단 쪽) 매가 2억5천 보2천 월 120 용9천)

③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 (8층중 2층) 62평 부영 APT) 매가 1억7천 보1천 월70 용9천)

④ 나주시 상명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 1억9천 (토지 205평 건 135평 용 1억2천)

⑤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⑥ 병천동 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 운안역 1번 출구 2번 출구 전제제품 신규개입대관료, 주인가주거) 매가 11억 보13천 용2000 월27 용1천 ⑦ 12평 매가 3천5천 보2000 월30 용1천

⑧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전원) (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5천 월1000 → 1억5천(용 6천가)

⑨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 48평 (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월1000 → 1억2천 (즉시 입주가능 시비없음)

⑩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 15평 수림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 매매가 8천 ② 10평 수림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앞 1층상가 200평 2~8층 룠 58개

월수익 2500만 매가 35억

최고급 오피스텔 룠 연비

주)수아 010-6832-9700 062)512-8080

목포시 용해동 APT 단지형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사계절 매가 3억1천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나주 삼명동(2층 건물) 나주 영랑초교 앞 2층 상가 대지 130평 주택 2층 200평 매가 1억9천 월 보증금 2천 월 150만원

여수 아파트매매 35평형(여수 남산동) 매매가 1억3천